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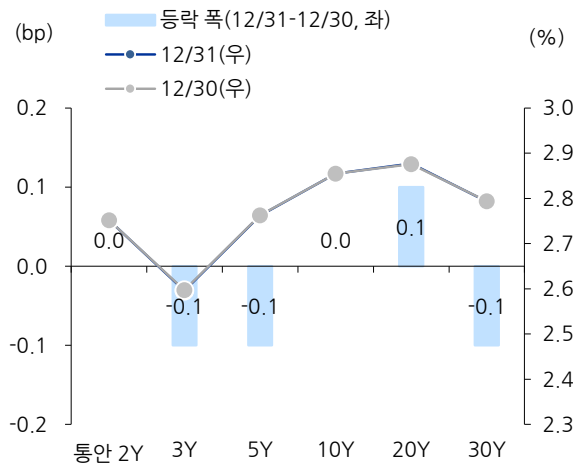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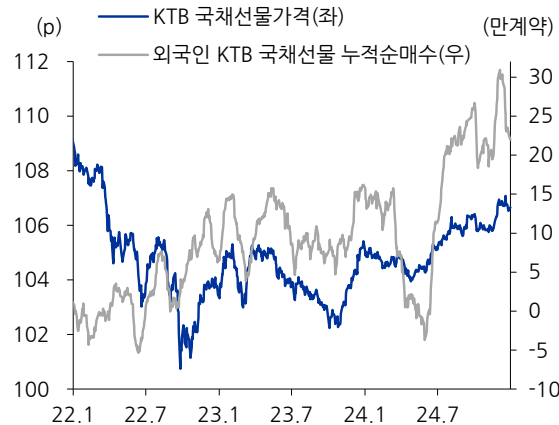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1/1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596%	-0.1	-2.0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55%	0.0	1.1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5.9	25.8	22.8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65	2.0	-12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16.92	13.0	-53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240%	-0.5	-10.3
	미국채 10년물	4.585%	5.0	-0.3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34.6	29.1	24.6
	독일국채 10년물	2.364%	0.0	4.5
	호주국채 10년물	4.368%	0.0	-7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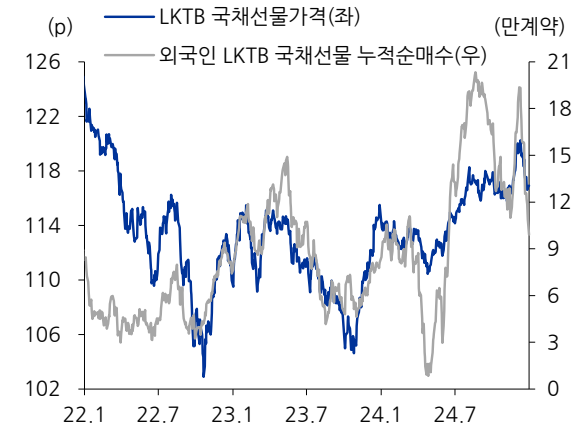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보험세 마감
- 국내 정치 불안은 현재진행형. 윤 대통령 영장은 오전 중 발부. 헌법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음.
- 다만 해당 상황과 별개로 금리는 장외시장에서 하락. 연말을 맞아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짐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. 국채지수 리밸런싱 속 수급 연동
- 연말 맞이하여 장 초반까지 거래는 평소보다 적었고, 시장을 움직일 재료 부재. 장중 국채지수 리밸런싱 여파를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이어졌으며, 점차 거래 급증
- 금일 미국, 중국, 유럽 제조업 PMI 발표 예정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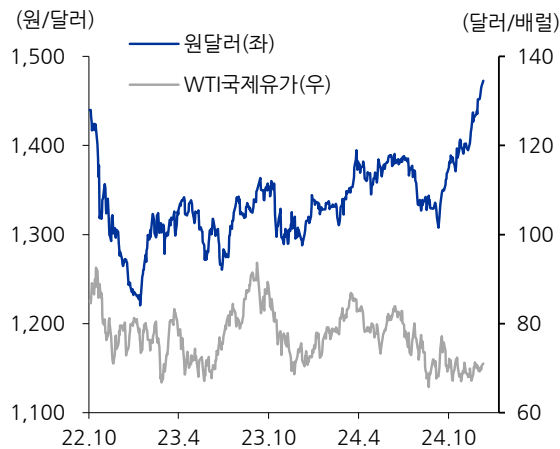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(단위: %, \$)

	1/1일	1D	1W	YTD
원/달러	1,472.50	0.3%	1.5%	0.0%
달러지수	108.45	-0.0%	0.3%	0.0%
달러/유로	1.041	-0.0%	-0.9%	0.0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31	-0.0%	0.5%	0.0%
엔/달러	157.14	-0.0%	-0.1%	0.0%
달러/파운드	1.254	-0.0%	-0.3%	0.0%
헤알/달러	6.19	-0.0%	-0.1%	0.0%
WTI 근월물(\$)	69.55	1.0%	3.6%	0.0%
금 현물(\$)	2,611.12	0.0%	0.3%	0.0%
구리 3개월물(\$)	8,936.50	-1.6%	-1.9%	0.0%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+5.00원 상승한 1,472.50원에 마감. 2023년 말 대비 +184원 넘게 상승.
- 간밤 달러는 보험권에 머물렀고, 한덕수 대행 탄핵 여파로 달러-원은 상승 출발. 그러나 장 초반 이후 상승폭 축소하며 오전 한 때 하락 전환.
- 그러나 오후 들어 재차 상승 압력이 이어졌고, 장 막판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한 채 마감. 오전 중 상승하던 국내증시도 오후 중 하락 전환.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채 금리 상승에 연동되며 연말까지 상승세 지속.
- 장중 이벤트는 없었던 가운데 연말 리밸런싱 영향으로 미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. 달러는 108.5 선까지 오르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. 2024년 연간으로는 +7.0% 상승.
- 유로화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산 가스 공급 중단 발표에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약세.
- 금일 미국 S&P글로벌 제조업 PMI 및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 예정.